2023 순전한 믿음 6
결정적인 순간을 이기는 믿음(마음과 의지의 관계)

[마태복음 16:24-25]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1. 고난과 의지

요즘 어려운 분들이 참 많다. 어려움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온다. 외부적인 환경이 사람의 내면에 영향을 준다. 요즘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꺾이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 결국 마음이 꺾였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의지' -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내적인 힘.

의지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이다.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다윗 - 골리앗 앞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골리앗의 환경을 이겨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꺾인다.

'마음이 꺾인 이스라엘'

[사무엘상 17:10-11] 10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위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마음이 꺾인 것이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마음이 꺾인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생각의 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생각을 빌드 업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꺾인 블레셋'

[사무엘상 17:51]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기세등등한 블레셋의 마음이 꺾인 순간이다. 마음이 꺾인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패한다.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다'

[사무엘상 17: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마음이 완전히 꺾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다. 이스라엘은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았다'. 마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블레셋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결국 어떤 마음이 '세워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승리의 패러다임'과 '패배의 패러다임'

'승리의 패러다임'이란?

생각을 빌드 업 하는 순서를 말한다. 기초부터 어떤 생각을 쌓아올려야 하는지를 말한다.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는 일,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 (=이 말은 철저히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말한다. 마음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친밀한 구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다. 마음이 세상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영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4:6-7]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 염려의 상황, 근심의 상황 :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 준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사람은 보여지는 상황에 친숙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뢴다.

7절 -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의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람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전인격적 동의로 "아멘!" 하며 믿어야 한다.

'패배의 패러다임'
패배의 패러다임은 '자기 의지'를 쓰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가 더 익숙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과 생각이 사람의 '의지'로 지켜지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려는 마음의 힘이 의지기 때문에 결국 신앙은 어떤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양면성'에 대한 이해
의지가 나쁜 것이 아니다. 어떤 의지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미움이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미움의 감정이 있다.
[시편 97:10]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성경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악'을 미워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강력한 말씀이다.

2. 마음과 의지
마음과 의지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 의지가 중요한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 때문이다. 결정적인 순간이란 사람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순간을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지가 없다면 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

1) 신념과 믿음 (의지에 대한 두 가지 표현)
신념 : 신념은 옛 자아로부터 오는 자기 생각.
믿음 :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확신의 정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꺾이지 않고 이길 수 있다.

2) 변화산 사건
[누가복음 9: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 9:29-36] 29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30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32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변화산은 예수님의 신성을 본 장소다. 하늘의 아름다움을 본 장소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다. 다른 차원,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가신다.

3) 내려간 이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의논하신 이야기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다.
[누가복음 9:31]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있다. 예수님의 여정은 결국 십자가를 향한 길이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여정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산에 머물러 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영광만을 추구한다. 계시가 있는 사람도 많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도 많다. 본 것은 많은데, 아는 것은 많은데, 경험한 것은 많은데 진짜 능력이 없다.

4) 소유하고 싶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영광의 순간을 소유하고 싶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십자가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좁은 길, 어린 양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다.

3. 결정적인 순간을 이기는 믿음
[마태복음 16:24-25]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국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생겨난 이유가 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이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마음을 경작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어린 양의 성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어린 양처럼 순하다. 저항이 없다. 저항이 없는 마음, 저항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가 보면 행복하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믿음의 의지를 발동한다. 우리 조이풀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욕망으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겸손하다. 낮아진다. 섬긴다. 순종한다.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의지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